

이동국 미들즈브러행 확정

포항과 최종 합의...국내 네번째 프리미어리거

'라이언 킹' 이동국(28·포항 스틸러스)이 마침내 한국 선수로는 네번째로 임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거가 됐다.

포항 스틸러스는 23일 "구단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희망해 온 이동국의 미들즈브러 이적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포항은 미들즈브러로부터 이적료는 받지 않지만 이동국이 국내 리그로 복귀할 경우 무조건 포항으로 와야 하며 이때 미들즈브러에는 이적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았다.

만약 이동국이 K-리그가 아닌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발생하는 이적료에 대해서는 포항과 미들즈브러 두 구단이

50대50으로 나눠 갖는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한편 이동국의 프리미어리그 진출 성공은 말 그대로 역경과의 싸움이었다.

지난 1998년 포항에 입단하면서 프로 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동국은 그해 치러진 프랑스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네덜란드전에서 위력적인 중거리포를 쏘아 올리면서 국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1998년 K-리그 신인왕 타이틀로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한 이동국은 그해 19세 이하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에 나서 5골을 몰아치면서 한국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한국 축구의 차세대 스트라이커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동국에게 첫 시련이 닥친 것은 2001년.

청운의 꿈을 안고 독일 분데스리가 브레멘에 진출했지만 부상과 병역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6개월 만에 쓸쓸히 귀국 길에 올랐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돼 한번 상처를 입은 이동국은 그해 아시안게임에서 대표팀이 동메달에 머물러 병역혜택마저 놓치고 말았다.

광주 삼무에서 심기일전을 다짐한 이동국은 2004년 독일과 평가전에서 갑작적인 터닝슛으로 골을 터뜨려 대표팀 특급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잡는 듯 했지만, 지난해 4월 K-리그 경기 도중 무릎을 다치면서 독일월드컵 최종명단에서 또 다시 제외되는 아픔을 맛보기도 했다.

마크 비두카



주전경쟁 시작됐다

이동국



최전방 비두카 올 6득점

이동국 팀내 최대 라이벌

프리미어리그 11위에 올라있는 미들즈브러에는 현재 다섯명의 가용 스트라이커 요원이 있다. 이 가운데 나이지리아 출신 아예그네니 야쿠부(25)는 사실상 부동의 간판 공격수다.

2006~2007 시즌 24경기에 단 한 게임도 빠지지 않고 뛴 야쿠부는 10골이나 뽑아냈다. 미들즈브러 전체 득점이 29골이니까 팀 공격에서 3분의 1을 혼자 책임진 셈이다.

가레스 사우스케이트 미들즈브러 감독이 주로 4-4-2 포메이션을 구사한다고 볼 때 이동국의 자리에는 야쿠부와 투톱을 이

뛰는 파트너 스트라이커 자리 뿐이다.

지금 이 자리는 호주 대표팀 주장 마크 비두카(32)가 꿰하고 있다. 비두카는 이

번 시즌 12경기에서 6골을 뽑았다. 특히 최근 다섯 경기 활약이 빠어났다.

2002~2003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0골을 넣은 적도 있는 비두카는 서른을 넘긴 베테랑으로 하향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188cm의 장신에 부드러운 볼 터

벤치로 밀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비두카는 A매치 37경기에서 6골을 뽑았다. A매치에선 이동국이 64경기, 22골로 단연 앞섰다.

경험 면에서도 크게 밀리진 않는다. 이동국은 K-리그 174경기에서 62골이나 뽑아낸 검증된 골잡이다. 비두카는 스코틀랜드 세리티파크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도 뛰었다.

이동국은 초반에 주어지는 몇 차례 기회에서 확실한 인상을 심어줘야만 진정한 프리미어리거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명석 빙속 1만m '동'



김명석(23·한국대)이 2007 토리노 동계유니버시아드 스피드스케이팅 1만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면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명석은 23일(한국시간) 새벽 이탈리아 토리노 오발링고도에서 펼쳐진 스피드스케이팅 10,000m 경기에 출전해 13분44초18로 결승선을 통과, 마르크 오이에파르(네덜란드·13분28초42)와 아르템 벨로우소프(러시아·13분44초00)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국내 선수가 아시아권 대회를 제외한 국제대회 스피드스케이팅 1만m 종목에서 메달을 따낸 것은 김명석이 처음이다.

특히 김명석은 자신이 2005년 12월 세웠던 1만m 한국기록(13분51초28)을 7초10이나 앞당겼다.

국민銀 승격 거부땐 리그에서 퇴출키로

N-리그 이사회 징계안

실업축구 내셔널리그(N-리그)가 K-리그 승격을 거부한 고양 국민은행에 대한 징계 계를 결정하고 이에 불응시 리그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N-리그는 23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07 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일단 ▲행장이나 단장(부행장) 등 책임 있는 관계자의 사과 ▲벌금 10억원 ▲승강제 이행 각서 제출 ▲전·후기 리그 10점씩 승점 20점 감점 등 국민은행에 대한 4가지 징계안을 마련했다.

N-리그는 이날 국민은행에 징계안을 전달한 뒤 29일 낮 12시까지 국민은행의 답변을 기다리기로 했다.

스포츠 뉴스

24일(수)

▲호주오픈 테니스 8강전(10:00·MBC ESPN)

▲MBC 신인왕전 복싱(14:00·MBC ESPN)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금호생명·우리은행)(16:50·SBS스포츠)

▲프로농구(LG·오리온스)(18:50·SBS스포츠), 〈전자랜드·삼성〉(18:50·Xports)

▲V-리그(흥국생명·도로공사)(16:40·KBSN SPORTS), 〈현대캐피탈·LIG〉(19:00·KBSN SPORTS)

25일(목)

▲칼링컵 축구(토트넘·아스널)(04:50·KBSN SPORTS)

백화점 경품 4등 당첨에 10억 쟁인 주부 이야기

백화점 경품 4등 당첨에
10억 쟁인 주부 이야기

060-700-3658

히포크라네스의 벌집과 양귀비의 녹차가 만나

탈모방지, 양모 효과

